



# ‘들판’에서 길어올린 광주·전남 문학의 정수

광주전남지역 대표적인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발행인 송광룡)이 이번 여름호(통권40호)로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문단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예지가 발간 10돌을 맞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제반 요소들의 중앙 집권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문학들 10년’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문학들’은 아카데미한 소통의 장을 통해 신예를 양성하고 기성문인들에게는 작품 발표의 장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담론 전개로 한국문단에 새로운 문학적 지평을 선사했으며 ‘광주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문학들’은 자본을 비롯하여 마케팅, 브랜드 포지셔닝 등에서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문학들’이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즉 문화의 다양성과 연대, 들판(野)의 너른 지평을 지향할 것이다.”

당시 창간호 서문에 밝혔듯이 ‘문학들’은 문학의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활발한 작품 생산의 견인과 담론 구현이라는 토대를 구축했다. 송광룡 대표는 “광주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하면서도 특정한 문학적 이즘이나 협애한 지역성에 함몰되지 않고 다양한 이념과 작품을 최대한 포용하여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로 만들겠다”는 게 당시의 지향점이었다고 말했다.

창간 당시 멤버로는 편집인 나중영(시인), 주간 고재종(시인), 편집위원 채희운(소설가), 임동환(시인), 이화경(소설가), 김형중(평론가) 씨 등이 참여했다. 편집고문으로는 이명환(소설가), 범대순(시인), 송기숙(소설가), 한승원(소설가), 김준태(시인), 김희수(시인) 등 한국문단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온 문인들이 이기투합했다.

창간 일원으로 참여했던 편집주간 채희운(소설가·광주여대 교수) 씨도 “당시에 광주는 문화도시와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이 일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마땅히 있어야 할 종합문예지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주년을 계기로 지역민들이 더 많이 책을 찾고 기업체가 책을 구입하는 매세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 창간 10주년·통권 40호 발행

### 지역 문단 신예 양성·다양한 담론 전개 광주 정체성 알려



광주에서 발행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이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2005년 창간 준비를 위한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준태 시인(위)과 창간호 대담을 나누고 있는 조정래 소설가(아래).

직업이 일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마땅히 있어야 할 종합문예지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주년을 계기로 지역민들이 더 많이 책을 찾고 기업체가 책을 구입하는 매세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들’은 그 제호에서도 드러나듯 “(지역)문학(들이) 있어야 한다” 이 나라에, 단 하나의 대문자 문학(Literature)이 아니라 다양한 소문자 문학(‘litteratures’)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 같은 당위는 편집 방향

에 그대로 적용돼 ‘지역 문학사’ 관련 아티클과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동시에 ‘변방’, ‘소수자’를 중심으로 끌어오는 기획들로 꾸러졌다.

이러한 편집 방향과 진정성 있는 노력은 이후 의미 있는 결실로 다가왔다. ‘문학들’에 발표된 작품들이 우수한 문학상의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지역은 물론 한국문단의 주목을 받는 집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문인들 사이에서도 광주에 가면 문학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 평론가 김형중(조선대 국문과 교수)은

“지역 문예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원고료를 지급한 점이나, 특정한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편집 방향을 고수해온 점이 회를 거듭할수록 신뢰를 쌓는 기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10주년 기념호에도 풍성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문학들’ 10년과 지역문예지의 역할’을 주제로 한 대담과 다양한 글들은 지나온 10년을 결산하고 향후 10년을 계획하는 의미 있는 좌표 설정이었다. 좌파에는 1세대 편집위원(채희운, 임동환)과 2세대 편집위원(이기호, 김형중), 그리고 ‘항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과 ‘작가와사회’ 박대현 편집위원이 참석해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 과제들을 두루 점검했다.

특집으로 ‘한국문학 10년’을 다룬 깊이 있는 글들이 수록되었으며, ‘문학들’과 5.18기념재단, 한국작가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5월문학상’ 수상작이 소개되었다. 또한 강희진, 박재규, 김준태 시인의 시와 문순태, 이화경, 한승원 작가의 작품이 실렸다.

“문학들’은 지난 2010년 가을호로 2기 편집위원을 출범시켰다. 박구용(전남대 교수·철학), 송승환(시인), 윤수종(전남대 교수·사회학), 이기호(광주대 교수·소설가), 임경규(조선대 교수·영문학), 한순미(조선대 강교수·국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편집의 방향을 문학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접 학문으로 영역을 확장 깊이 있고 폭넓은 담론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불황과 경기 위축에도 ‘문학들’의 행보는 지역 문학계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아쉬운 점은 정부의 문화 정책과 관련 지역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채희운 편집주간은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한 차별적 정책은 지역 문화의 고사는 물론 지역 문화의 중앙중속화를 낳는다”며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빛골아리랑’ 출연할 배우 모집합니다

### 광주문화재단 30일까지 접수

### 광주 출신자·예술인 우대

광주문화재단은 제4회 광주아리랑대축전 기획공연 뮤지컬 ‘빛골아리랑’에 출연할 배우 31명을 모집한다.

‘빛골아리랑’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4회 광주아리랑대축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8월 5월 민주화항쟁을 배경으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던 그 시절 한 가족이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총연출 유희성, 안무 오재익, 음악 이경화 씨가 맡아 제작되어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오후 8시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총 2회 공연이 펼쳐진다.

‘빛골아리랑’은 광주의 브랜드 공연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히 이번 오디션에서 광주지역 출신 배우들과 광주·전

남지역의 뮤지컬관련 학과 학생들을 우대해 지역의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출연시킬 예정이다.

출연배우 자격요건은 노래와 춤·연기 능력을 갖추고, 연습·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특히 광주지역 예술인이나 출신자를 우대한다. 접수는 25일부터 30일까지 광주문화재단(www.gjcf.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g-jarirang@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를 통한 1차 심사 후 7월 6일 오디션을 거쳐 주·조연 6명과 앙상블 25명 등 총 31명의 배우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빛골아리랑’ 배우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뮤지컬하우스 호연재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습을 거쳐 9월 공연에 출연하게 된다. 문의 062-670-797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80년 5월 민주화항쟁을 배경으로 한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를 담은 작품 ‘빛골아리랑’의 한 장면.

### 시·소설·동화·희곡·시나리오

## ‘제3회 담양송순문학상’ 작품 공모

담양군이 가사문학의 대가 면양 송순을 기리는 ‘제3회 담양송순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시(시조, 동시), 소설, 동화, 희곡, 시나리오로 작품은 담양을 소재로 하거나 담양 관련 인물 등과 관계된 미 발표작 또는 2년 이내 창작품(최소 8.8~현재)이어야 한다.(운문은 최소 5면 이상, 단편소설은 최소 1편 이상 담양 소재 작품이어야 한다.)

작품 분량은 책으로 제출하거나 미발표작은 1권 분량을 가편집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 기한은 오는 10월 31일(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물관 종료)이며 12월(예정)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가 발표되고 개별 통지된다. 상금은 대상 1명에게 2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0만원이 지급되며 작품 수준이 미달 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당선작은 향후 5년간 송순문학상운영위원회와 당선작가에게 동시 귀속된다. 보낼 곳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송순문학상운영위원회(군청 문화체육과 내). 문의 061-380-2801.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 010-6518-7123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철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철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평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복수 물 꼭 확인하세요...

총질경영시스템엔진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